

■ ILT 속보



〈이상운 회장〉



〈박근식 과장〉

일본의 ILT 방역 현황 시찰

본회 이상운 회장과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과장은 일본의 ILT 방역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6월 28일 도일하였다가 7월 3일 귀국 하였다.

이번 ILT 해외 조사단은 7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하계강습회에서 귀국보고를 겸할 예정이다.



김순재 박사 ILT 교육

〈김순재 박사〉

본지 편집위원이며 가축위생 연구소 연구관 김순재 박사는 7월 3일 오전 5시 25분부터 20분간 ILT 방역에 대해 KBS 제 1 TV를 통해 대농민교육을 하여 일반 농가로부터 큰 환영을 얻었다.

김순재 박사는 이미 본지 4월호에 ILT (전염성 후두기관염)의 제목으로 장장 7면에 걸쳐 상세히 기고 하였고 지난 6월 29일에도 본회 회의실에서 양축가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현재 ILT의 발병 피해 현황과 방역 대책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ILT 발병에 따른 소독약의 남용, 오용에

대한 좌담회에도 참석 한 바 있으며 본회는 KBS-TV의 방영시간을 지부 분회를 통해서 전국 양제인 들에게 통보 시청토록 하였다.



ILT 피해 현황조사

〈이인형 과장〉

본회 황인옥 전무는 농수산부 이인형 과장이 태호기사 등과 함께 서울 근교의 ILT 피해 농장을 시찰하고 특히 브로일러의 유통 현황과 체화현황등을 현장 확인 하였다.

ILT 백신 시판 개시

우리나라 특유의 형편으로 크게 번창일로에 있는 ILT는 이제는 산란계 브로일러 종계할 것 없이 거의 전국에 전파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피해가 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발생지역에 한해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백신을 수입 시판키로 하였다.

백신은 녹십자 수의약품이 미국의 스테윈사에서 한국바이엘화학은 미국의 셀스버리 연구소에서 각기 우선 백만수분을 7월 중순부터 수입시판 할 것으로 알려 졌으며 시판가격은 10~12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질병예방 위원회 개최

〈이창구 소장〉

6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는 가축

■ ILT 속도

위생 연구소 이창구조장을 비롯한 관계관 참석하에 질병예찰 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질병예찰 위원회에 관한 기사는 본지 4월호에 소개 되었으며 이날 개최된 질병예찰 위원회에서는 최근 만연되는 ILT 방역 문제가 토의되었다.

ILT 피해 사례 발표회

본회는 지난 6월 29일 전국 분회 및 지부 대표와 서울근교의 대군업자 30여명이 본회 회의실에서 ILT 정보 교환을 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전국 각지역별 ILT 발병 현황과 ILT 경험 농장의 체험담 발표와 그후 대책등에 대해 정보교환을 하였다.

이날 밝혀진 바로는 종계장 대군산란계 브로일러 농장등에 ILT가 광범위 하게 전파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역별 ILT 발병은 천안이북이 특히 심한데 서울 근교의 경우 북양주 일대에는 거의 전지역이 감염 되었다. 백석면의 경우 육계가 먼저 발병후 이지역의 6~7명 대군업자가 피해를 보았고 백석을 강타한 ILT는 회천면으로 이동해서 독바우 복지리 일대를 휩쓸고 지나갔다. 이지역 K농장에도 ILT가 찾아왔다고 하며 포천지역은 산란계는 심한데 60만수의 육계는 아직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양주는 북양주에 비해 좀 덜한데 마석진 전 진접면이 좀 덜한 편이다. 양평에도 왔으며 채란계의 경우 닭이 건강하면 피해가 적으나 일반적으로 10%정도의 폐사와 35~40%로 산란율이 하락해서 피해가 크며 산란계의 경우 초산전의 닭에도 오기 때문에 난좌 외에도 계분 사료 계란차등을 통한 방역에도 힘써야 한다. 채란계의 경우는 약 15일이면 거의 회복이 되고 있었다.

경기 광주지역은 산란계 육계 모두에 발생

했으며 안성의 한종계장에도 발생했다. 안양 지역은 4월부터 시작해서 부화장들도 당하고 브로일러 농장의 경우 약 $\frac{1}{3}$ 이 당하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 첫날 1마리 병계가 발생하면 다음날 약 50수로 감염이 되며 사료섭취량이 $\frac{1}{3}$ 정도로 감소하고 200g정도 체중 감소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 육계는 발병일령에 따라 폐사율등 피해가 다르나 커서(40일 이후) 발병할수록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발병했던 농장에서는 계속 입추를 하며 병계를 혼사시켜 빨리 감염토록 하는등 새로운 질병이라 대책도 갖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일 이전에 오면 사양관리에 따라 다르나 5% 정도 폐사에 그치나 30일령 이후에는 즉시 처분을 하고 있는 형편이며 거담제 사용과 합병증을 막기위한 투약등 금전과 정신적 손실이 크다.

부천지역은 발병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이곳 J농장의 경우 산본리로부터 옮겨온것 같다고 한다. 37일령 1,400g 된 닭에 발병 되었는데 1주일 동안은 잠잠하다 옆계사로 옮기기 시작해서 매일 1계사씩 옮겨 전 계사에 감염 되었다. 1회 5,000수씩 입추하는 농장으로 이때부터 매일 50~70마리씩 폐사해서 약 13%정도가 ILT로 폐사 하였다. 이 농장은 ILT가 들어오자 얼마나 죽나 보자하고 뱃심으로 버텨본 농장은 폐사외에 40% 사료섭취량이 감소해서 피해가 컸으며 대개 40~54일령에서 감염 되었다.

온양 지역도 ILT가 발생했다고 하며 전북은 5개의 집단 농장 모두에 ILT가 다녀갔다. 전남에도 산란계에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부산지역은 1~2집에 ILT가 있었다고 한다. 경북지역은 김천을 비롯해서 대구 근교에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번 거쳐간 농장은 오히려 한숨 놓으나 아직 당하지 않은곳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